

# 절병합현상과 한국어의 사역형구문<sup>1)</sup>

이 건 수

## 1. 서론

문법관계를 근원적 개념으로 인식하는 관계문법에서는 문장구조를 문장의 요소들이 갖는 문법관계와 그 관계가 성립하는 층(stratum)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호들로 구성된 관계망(relational network)으로 표시한다. 관계망들의 적형성은 보편규칙들에 의해 규제되며 통사현상은 문장요소들의 문법관계의 변화로 설명된다. 아울러, 문법관계의 변화 또한 보편규칙들에 의하여 규제된다.

절병합(clause union)이란 어떤 부류의 문장들이 최초의 층에서는 복문구조를 최종의 층에서는 단문구조를 갖는 현상이다. Perlmutter & Postal (1974)이 터키어, 불어 및 일본어의 사역형구문을 절병합으로 설명하고 절병합규칙을 제안한 후 Aissen & Perlmutter (1983), Gibson & Raposo (1986), Rosen (1983), Dubinsky (1985), Davies & Rosen (1988) 등은 여러 언어에서의 절병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아울러, Gerdts (1990)와 Kim (1990)도 한국어의 '하'동사 사역형구문을 절병합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하'동사 사역형구문은 절병합의 결과가 아니라 '하'의 하위범주화적 특성에 의한 구문임을 논한다. 2장은 관계문법의 기초개념 및 규칙들과 절병합을 소개하고 한국어의 사역형구문을 살펴본다. 3장은 절병합규칙을, 4장은 Gerdts와 Kim의 절병합분석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하'의 하위선택적 특질에 근거하는 복합문적 분석을 제시한다. 5장은 복합문적 분석이 절을 적용단위로 하거나 절경계에 민감한 통사규칙들이 '하'사역형구문과 어울려 보이는 현상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논한다.

## 2. 관계문법적 개념들과 한국어 사역형구문의 유형

본 장에서는 본 논문의 이해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문법적 개념과 절병합현상을 설명하고 한국어의 사역형구문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 2.1. 관계문법적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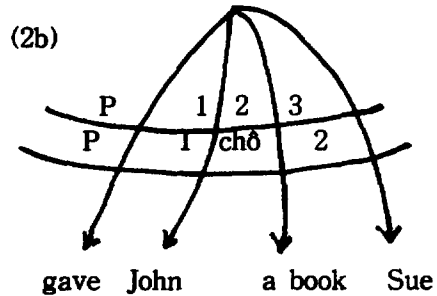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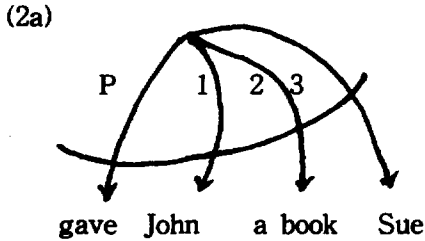
관계문법에서는 (1a)와 (1b)와 같은 문장들의 구조를 (2a)와 (2b)와 같은 층그림(stratal diagram)으로 나타낸다.<sup>2)</sup>

1) 이 연구는 경희대학교 1993년도 교비지원에 의한 결과임.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영어영문학과.

2) '1'은 주어관계, '2'는 직접목적어관계, '3'은 간접목적어관계, 'P'는 서술어관계를 가리킨다.

- (1) a. John gave a book to Sue.
- b. John gave Sue a book.



(2a)는 (1a)의 총그림으로, 'gave', 'John', 'a book', 'Sue'는 각각 서술어, 주어,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라는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1b)의 총그림인 (2b)는 'gave', 'John', 'a book', 'Sue'가 최초의 층에서와는 달리 최종의 층에서 각각 서술어, 주어, 'chômeur', 직접목적어라는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2b)에서 'Sue'가 직접목적어로 승진한<sup>3)</sup> 결과 최종의 층에 직접목적어관계를 갖는 요소가 두개 존재하게 되나, (3)과 같은 보편규칙이 같은 층에 동일한 문법관계를 지니는 요소가 두개 이상 존재할 수 없도록 규제하므로 'a book'은 chômeur로 문법관계가 변화된다.

(3) The Stratal Uniqueness Law (Perlmutter & Postal 1983b:92)

No stratum can contain more than one 1-arc, one 2-arc, or one 3-arc.<sup>4)</sup>

문장의 요소는 절 내에서 또는 절의 경계를 넘어서 두 개의 문법관계를 동시에 지닐 수도 있다. 이를 문법관계의 공유(multiattachment)라고 한다. 재귀대명사화현상이 동일한 절 내에서의 문법관계의 공유로 설명되어지는 경우이며,<sup>5)</sup> (4)와 같은 인상구문은 절 경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문법관계공유로 설명되어지는 경우로 총그림은 (5)와 같다.

3) 문법관계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위계(hierarchy)가 존재한다:

Subject > Direct Object > Indirect Object > Obliques

상위방향으로의 변화를 승진(advancement, promotion), 하위방향으로의 변화를 강등(retreat, demotion)이라 하며, 이러한 문법관계의 변화를 revaluation이라 한다.

4) (3)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보편규칙들이 chômeur관계의 조건을 규제한다:

(i) The Chômeur Law (Perlmutter & Postal 1983b:96)

Nominals necessarily bear the chômeur relation under conditions that would otherwise lead to violations of the Stratal Uniqueness L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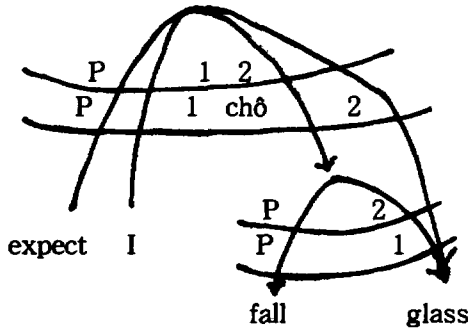
(ii) The Motivated Chômage Law (Perlmutter & Postal 1983b:100)

Chômeurs exist only under the conditions described in the Chômeur Law.

5) Perlmutter & Postal (1984b), Blake (1990), Rosen (1981) 등을 참조할 것.

(4) I expect the glass to fall.

(5)



(5)는 (4)에서 'glass'가 내포문의 요소이었으나 최종의 층에서는 모문의 목적어관계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에서 주목할 것은, 내포문이 최초의 층에서는 모문의 목적어관계를 지니고 있었으나 비대격(unaccusative)동사인 'fall'의 최종의 주어인 'glass'가 모문으로 상승하여 모문의 목적어관계를 갖게 되고 내포문 자체는 chômeur 관계로 강등되는 문법관계변화가 일어나지만 복합문의 구조를 유지한다는 것이다.<sup>6)</sup>

## 2.2 절병합

인상구문과 유사하나 다소 다른 현상으로 절병합이 있다. 스페인어에서는 최종의 층에서 목적어관계를 갖는 요소들이 명사일 때에는 술어의 뒤에 위치하나 대명사일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강조나 대조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강형태(strong form)를 취하며 (6)에서와 같이 명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술어의 뒤에 위치한다.<sup>7)</sup>

(6) Eduardo no la vio a ella sino a él.  
'Eduardo didn't see her but him.'

6) 인상구문에서의 문법관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보편규칙들에 의하여 규제된다.

(i) The Relational Succession Law (Perlmutter & Postal 1983a:53)

An NP promoted by an ascension rule assumes the grammatical relation borne by the host out of which it ascends.

(ii) The Host Limitation Law (Perlmutter & Postal 1983a:53)

Only a term of a grammatical relation can be the host of an ascension.

문장요소들이 갖게 되는 문법관계 중 주어 및 목적어관계를 논항관계(term relation)라 하는데, 규칙 (ii)는 (4)의 문장에서 내포문의 최종주어인 'glass'만 모문으로 상승하도록 규제하며 규칙 (i)은 상승된 명사가 내포문이 지니었던 모문의 목적어관계를 물려받도록 규제한다. 아울러, 앞의 규칙 (3)과 주(3)의 규칙 (i)과 (ii)에 의해 내포문은 chômeur 관계를 갖게 된다.

7) Aissen & Perlmutter (1983:361-5)의 예들임. 자세한 논의는 Aissen & Perlmutter (1983)와 Blake (1990:104-5)를 참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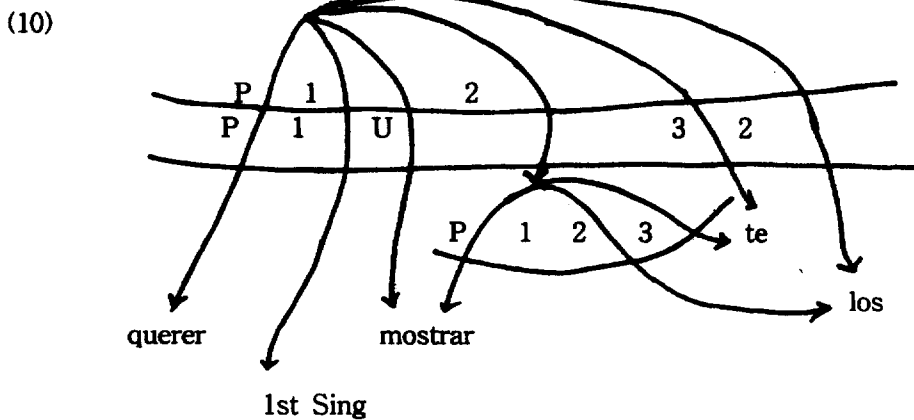
반면에, 비강조나 비대조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에는 첨사(clitic)의 형태로 나타나며 슬어동사의 형태에 따라 (7)과 (8)에서와 같이 두 가지 어순을 택한다. 슬어가 정형동사이면 슬어의 앞자리에, 비정형동사이면 슬어의 뒤에 부착되어 나타난다.

- (7) Eduardo la vio.  
'Eduardo saw her.'
- (8) a. Quiere verla.  
'He wants to see her.'  
b. Sigue viéndla.  
'He continues seeing her.'

이제 아래 (9)의 예들을 보자.

- (9) a. Quiero mostrartelos.  
I:want show:you:them  
'I want to show them to you.'
- b. Te los quiero mostrar.  
You them I:want show  
'I want to show them to you.'

(9a)에서는 내포문의 슬어가 비정형동사로 논항들인 'te'와 'los'가 (8)에서와 같이 슬어의 뒤에 부착되어 나타났으나, (9b)에서는 의미적으로 내포문의 슬어인 'mostrar'의 논항들인 'te'와 'los'가 'mostrar'가 비정형동사이면서도 정형동사의 경우인 (7)에서와 같이 모문의 동사 앞에 나타났다. 이는, (9a)는 모문과 내포문으로 이루어진 복문이나 (9b)는 단문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9b)의 구조는 (10)과 같다.



(10)은 최초의 층에서는 모문과 내포문이었던 절들이 최종의 층에서 하나의 절로 합쳐짐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내포문의 술어는 병합술어관계(Union)를 얻고 내포문의 요소들은 모문으로 상승되어 모문에서의 주어,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관계를 얻는다. 인상구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절병합구문도 절경계를 넘는 문법관계공유를 보이나, 인상구문과는 달리 내포문의 요소들이 모두 모문의 요소로 상승되어 최초의 층에서는 복문이었으나 최종의 층에서는 단문의 구조를 취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절병합현상은 사역형구문에서도 발견된다. 아래의 이태리어의 예문들을 보기로 하자.<sup>8)</sup>

- (11) a. *Maria parla.*  
 'Maria speaks.'
- b. *Anna fa parlare Maria.*  
*Anna makes speak Maria*  
 'Anna makes Maria speak.'
- c. *Anna la fa parlare*  
*Anna her makes speak*  
 'Anna makes her speak.'
- (12) a. *Maria scrive una lettera.*  
 'Maria writes a letter.'
- b. *Anna fa scrivere una lettera a Maria.*  
*Anna makes write a letter to Maria*  
 'Anna makes Maria write a letter.'
- c. *Anna gliela fa scrivere.*  
*Anna 3dat:3sg.fem makes write*  
 'Anna makes her write it.'

위의 예들은 각각 자동사와 타동사의 사역형문장들이다. (11a)에서 자동사의 주어인 'Maria'는 (11b)에서 직접목적어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는 'Maria'가 (11c)에서 여성 단수 목적어 첨사인 'la'로 대체된 것으로 알 수 있다. 아울러, (11c)에서 'fa parlare'의 어순을 보이는 것은 (11c)가 단문임을 보여준다. 한편, (12a)에서 타동사의 주어인 'Maria'는 간접목적어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는 (12c)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태리어에서는 사격목적어(oblique)나 *chômeur*와는 달리 간접목적어만이 첨사로 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간접목적어 첨사인 'gli'와 직접목적어 첨사인 'la'가 'scrivere'에 덧붙여지지 않고 'fa'앞에 위치하는 것은 (12c)가 복문이 아니라 단문의 구조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두개의 첨사들이 동사 'scrivere'의 논항들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8) Blake (1990:109)의 예문들임.

요약하자면, 인상구문에서는 내포문의 한 요소만 모문으로 인상될 뿐 복문구조를 유지하나, 절병합에서는 내포문의 요소들이 모문의 문법관계를 얻게 됨은 물론, 내포문의 동사도 병합술어관계를 얻어 최종의 층에서 단문구조로 변한다. 더욱이, 사역형구문의 경우에는 절병합의 결과로 논항이 하나씩 늘어나게 되어 내포문의 요소들간의 문법관계변화는 (9)와 같은 동일주어생략구문의 경우와는 다른 규칙에 의해 규제될 것이 예측된다. 이러한 규칙을 절병합규칙(Clause Union Law)이라 한다. 절병합현상과 절병합규칙에 대한 논의는 편의상 3장으로 미루기로 한다.

### 2.3 한국어 사역형구문의 유형

Perlmutter & Postal (1974)이 사역형구문을 형성하는 절병합규칙이 존재함을 주장한 이후로 Aissen & Perlmutter (1983), Bell (1976), Harris (1981), Seiler (1978) 등은 다양한 여러 언어들에 있어서의 사역형구문을 절병합으로 분석하여야 할 것을 논의하였다. 한편, Gibson & Raposo (1986), Rosen (1983) 등은 다양한 언어에의 보편적 적용을 위하여 Perlmutter & Postal (1974)의 절병합규칙을 수정하였다. 아울러, Gerdts (1990)와 Kim (1990)도 Perlmutter & Postal, Gibson & Raposo와 Rosen을 따라 한국어의 '하'사역형구문도 절병합에 의한 결과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 논의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한국어의 사역형구문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어에는 (13)과 (14)와 같은 두 가지 형태의 사역형구문들이 있다.

- (13) a. 철수가 순이-가/-를/-에게 떠나게 하였다.  
       b. 철수가 순이-가/-를/-에게 책을 읽게 하였다.
- (14) a. 철수가 순이-\*가/-를/-\*에게 죽이었다.  
       b. 철수가 순이-\*가/-를/-에게 사과를 먹이었다.

(13)과 (14)는 장형사역형과 단형사역형으로 불려지는 사역형문장들이다.<sup>9)</sup> (14)와는 달리 (13)에 있어서는 사동의 객체(causee)인 '순이'라는 명사가 주격, 목적격, 간접목적격 표지를 자유롭게 취한다. 더욱이, 동사 부분에는 보문자(complementizer)로 보여지는 '-게'가 나타나고 있어 causee 명사에 나타나는 주격표지와 더불어 (13)의 문장들의 복문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causee 명사에 주격뿐만 아니라 목적격과 간접목적격표지도 함께 나타날 수 있어 (13)의 문장들의 단문분석도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Park (1972), Patterson (1974), Kang (1984), Park (1986) 등은 (13)의 문장들을 심층에서는 복문의 구조를 표층에서는 단문의 구조를 갖는 구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Gerdts와 Kim도 causee 명사의 격표지교체를 절병합에 의한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구문중 Gerdts와 Kim이 절병합으로

9) 이들을 지칭하는 명칭이 학자들간에 다르나 편의상 Yang (1972)을 따라 장형(long form)과 단형(short form)이라 칭하기로 한다.

설명하고 있는 장형사역형구문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 3. 절병합과 절병합규칙

절병합이란 내포문의 요소들이 모두 모문의 요소로 변하여 결과적으로 두 개의 절들이 하나의 절로 병합되는 현상임을 보았다. 아울러, (11)과 (12)의 이태리어의 사역형구문들의 예를 통하여 살펴본 절병합에서 자동사의 주어와 타동사의 주어는 각각 목적어와 간접목적어로 문법관계가 변화되는 것도 보았다. Perlmutter & Postal (1974)은 터키어, 불어, 일본어도 사역형구문의 형성에 있어서 이와 동일한 변화를 보임을 관찰하고 (15)와 같은 절병합규칙을 제안하였다.<sup>10)</sup>

(15) Clause Union Laws (Perlmutter & Postal 1974)

- a. The predicate of the complement clause bears the U(nion) relation in the union stratum.
- b. The final 1 of the complement is revalued as follows:
  - i. The final 1 of an intransitive stratum is revalued as a 2 in the union stratum.
  - ii. The final 1 of a transitive stratum is revalued as a 3 in the union stratum.

그러나, Gibson (1980)과 Gibson & Raposo (1986)는 언어에 따라 절병합의 유형을 달리함을 관찰하였다. 특히, Gibson & Raposo (1986)는 Chamorro와 불어의 사역형구문들을 분석하면서 Chamorro에서는 (16)과 (17)에서와 같이 'causee' 명사가 내포문동사의 자/타동성에 관계없이 목적어관계로, 내포문의 목적어는 항상 chômeur관계로 변화되는 것을 관찰하였다.<sup>11)</sup>

- (16) a. Maipi i kafe.  
           hot the coffee  
           'The coffee is hot.'

10) Comrie (1976)는 다양한 언어들에서 사역형구문의 형성시 내포문의 주어의 문법관계만 변화하며 문법관계의 변화는 아래와 같은 위계에 의함을 관찰하였다:

(i) Subject - Direct Object - Indirect Object - Other Obliques

다시 말하자면, 내포문의 주어는 모문에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어로, 목적어는 있으나 간접목적어가 없으면 간접목적어로, 직접목적어와 간접목적어가 모두 있으면, 사격을 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15)는 Comrie의 유형적 관찰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11) 예문들은 Gibson & Raposo (1986:312)의 것이며 'lk'는 linker를 의미함. Chamorro와 불어의 사역형구문의 절병합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Gibson & Raposo (1986)를 참조할 것.

- b. In taitai esti na lebblu.  
 we read this lk book  
 'We read the book.'
- (17) a. Hu na'-maipi i kafe.  
 I cause-hot the coffee  
 'I heated the coffee.'
- b. Ha na'-taitai häm i ma'estru ni esti na lebblu.  
 3sg cause-read us the teacher obl this lk book  
 'The teacher made us read the book.'

Gibson & Raposo에 의하면, 능격언어(ergative language)인 Chamorro어에서는 최종의 주어와 직접목적어가 대명사가 아닐 경우에는 격표지가 없는 동일한 형태를 취하며 타동문의 주어는 동사 앞에 나타나는 일치표지를 결정하나, 자동사의 최종주어와 타동사의 최종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동사 뒤에 첨사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17a)에서는 내포문의 주어인 'i kafe'가 격표지 없이 나타나고 능격표지인 'hu'와 일치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은 'i kafe'가 절병합후에 직접목적어관계를 갖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7b)에서는 내포문의 주어가 절대격(absolutive) 대명사인 'häm (1PL)'으로 표시되는데 능격표지인 'ha'가 (14b)가 최종의 층에서 타동문임을 보이므로 절대격 대명사는 병합된 절에서 직접목적어관계를 지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Chamorro에서는 내포문의 주어는 항상 직접목적어관계로 변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불어에서는 내포문의 주어가 항상 간접목적어관계로 변함을 보이면서, Gibson & Raposo는 절병합규칙이 (18a)와 같이 매개변인화되어야 할 것과 (18b)와 같은 상속원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18) a. Clause Union Revaluation Parameter

The downstairs 1 must become a 2 or a 3,

Language particular rules specify which and under what conditions.

b. Inheritance Principle<sup>12)</sup>

All other nominals inherit their downstairs relation subject to the Stratal Uniqueness Law and the Motivated Chômage Law.

되풀이한다면, 불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내포문의 자/타동성에 관계없이 내포문의 주어를 간접목적어로 변하게 하는 절병합규칙이 있는 반면, Chamorro와 같은 언어에서는 내포문의 자/타동성과 무관하게 내포문의 주어를 직접목적어로 변하게 하는 절병합규칙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어를 제외한 내포문의 다른 요소들은 자신의 문

12) 상속원리는 Perlmutter and Postal (1974)에서 간과된 내포문의 주어이외의 요소들의 문법관계의 변화에 대한 규칙이다.



법관계를 물려받거나 모문에 이미 같은 문법관계를 갖고 있는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Stratal Uniqueness Law, Chômeur Law 및 Motivated Chômeur Law에 의해 chômeur관계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즉, 절병합에 있어서 내포문의 주어의 문법관계의 변화는 언어에 따른 개별규칙을 따르며 내포문의 나머지 요소들의 문법관계의 변화는 보편규칙들의 규제에 따른다는 것이다.

한편, Rosen (1983)은 이태리어의 사역형구문에는 Perlmutter & Postal (1974)의 규칙으로도 Gibson & Raposo (1986)의 규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19a)와 같은 또 다른 유형의 절병합이 있음을 관찰하였다.

- (19) Faremo accompagnare il gruppo da un interprete.  
 we'll-make accompany the group by an interpreter  
 'We will have an interpreter accompany the group.'

(19)의 특성은 (11)과 (12)와 같은 사역형문장들과는 달리 내포문의 주어인 causee 명사가 (20)과 같은 수동형 문장의 chômeur와 같은 격표지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절병합의 결과 causee 명사가 chômeur관계로 변하였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 (20) Il gruppo sara accompagnato da un interprete.  
 the group will-be accompanied by an interpreter  
 'The group will be accompanied by an interpreter.'

이제, Perlmutter & Postal과 Gibson & Raposo의 규칙들이 (19)의 문장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기로 하자. (19)에서 내포문주어인 'un interprete'는 직접목적어나 간접목적어관계가 아닌 chômeur관계를 갖고 있다. 이를 (15)나 (18)의 규칙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절병합이 일어나기 전에 내포문이 수동화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내포문이 수동화된다면, 충그림 (21)에서와 같이, 내포문의 최초의 직접목적어인 'il gruppo'는 주어로, 최초의 주어인 'un interprete'는 chômeur관계로 변하여 최종의 충은 자동구문이 된다. 그렇다면, (15)는 내포문의 최종주어인 'il gruppo'가 직접목적어관계를 갖게 됨을, (18)은 'il gruppo'가 직접목적어관계를 갖게 됨과 내포문에서 chômeur관계를 갖고 있던 'un interprete'가 chômeur관계를 물려받게 됨을 설명할 수 있다.<sup>13)</sup>

- (21) 

1	chô	2
	1	2
	chô	1

  
 Faremo un interprete il gruppo

13) (21)은 내포문의 논항들의 문법관계변화만을 약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논의에 지장이 없는 한, (21)과 같은 약식 충그림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Rosen은 (22)에서와 같이 (19)의 내포문의 동사에 수동형태소가 나타날 수 없음을 보이면서 내포문을 수동문으로 분석하여서는 안될 것을 주장하였다.

- (22) \*Faremo essere accompagnato il gruppo da un interprete.  
 we'll-make be accompanied the group by an interpreter  
 'We will have an interpreter accompany the group.'

내포문의 주어가 언어에 따라 고정된 절병합규칙에 의해 규제됨을 주장한 Gibson & Raposo와는 달리, Rosen은 (19)와 같은 유형의 사역형문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언어에 따라서는 내포문주어의 문법관계가 변화되지 않는 절병합(No-Revaluation)도 있음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Rosen은 이러한 유형의 절병합에 있어서는 보편규칙들에 의해 내포문요소들의 문법관계의 변화가 규제됨을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Rosen에 의하면, (19)의 층그림은 (23)과 같으며 내포문의 목적어인 'il gruppo'는 Gibson & Raposo의 상속원리에 의해 목적어관계를 얻게 되고 내포문의 주어인 'un interprete'는 Stratal Uniqueness Law, Chômeur Law 및 Motivated Chômeur Law와 같은 보편규칙들에 의해 chômeur관계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 (23)  $\frac{1 \quad \text{chô} \quad 2}{1 \quad 2}$   
 Faremo un interprete il gruppo

#### 4. 절병합분석과 복합문적 분석

본장에서는 Gerdts (1990)와 Kim (1990)의 분석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대안으로 동사 '하'의 하위범주화적 특성에 근거한 복합문적 분석을 제안한다.

##### 4.1 절병합분석

2.3에서 한국어에는 동사 '하'에 의해 형성되는 (24)와 같은 사역형구문이 있음을 보았으며 causee 명사의 격표지 또한 주격, 목적격, 간접목적격으로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음도 보았다.

- (24) a. 철수가 순이-가/-를/-에게 떠나게 하였다.  
 b. 철수가 순이-가/-를/-에게 책을 읽게 하였다.

Gerdts와 Kim은 (24a)와 (24b)의 문장들은 최초의 층에서는 (25a)와 (25b)와 같은 복문의 구조를 취하나 절병합에 의하여 최종의 층에서는 단문의 구조를 갖는 구문이라

는 가정하에 절병합규칙으로 격표지교체를 설명하고 있다.

- (25) a. [철수 [순이 떠나] 하]
- b. [철수 [순이 책 읽] 하]

Perlmutter & Postal (1974)에 의하면, 내포문의 주어는 내포문동사의 자/타동성에 따라 직접목적어나 간접목적어관계를 얻게 된다. 한편, Gibson & Raposo (1986)에 의하면, 내포문의 주어는 언어에 따라 고정되어 있는 절병합규칙에 의하여 직접목적어 또는 간접목적어관계를 얻게 된다. 그러나, 한국어의 '하'동사 사역형구문에서 내포문의 주어는 내포문동사의 자/타동성에 관계없이 주격, 직접목적격, 간접목적격으로 자유롭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이성에 주목하여 Gerdts와 Kim은 한국어에는 Perlmutter & Postal의 절병합과 Rosen이 제안한 내포문주어의 문법관계의 변화가 없는 절병합이 함께 공존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Gerdts와 Kim에 의하면, 자동사의 사역형구문인 (24a)와 타동사의 사역형구문인 (24b)에서 내포문주어의 직접목적격과 간접목적격 표지는 Perlmutter & Postal의 절병합규칙에 의한 것이며, (24b)에서 직접목적격표지는 내포문의 주어가 절병합에 의하여 간접목적어관계를 얻은 후 직접목적어로 승진하였기<sup>14)</sup>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어에도 내포문의 주어에 절병합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절병합이 있는데, 이 경우, (26)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모문에 이미 주어가 있기 때문에 내포문의 주어는 절병합 후에 *chômeur*관계로 변하고 1-*chômeur*관계는 주격으로 표지되므로 (24)에서와 같이 내포문주어는 주격으로 표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15)</sup> 그리고, (24b)에서 내포문의 직접목적어는 Gibson & Raposo의 상속원리에 의해 병합후에 자신의 문법관계를 물려받는다는 것이다.

(26) a. <u>1</u> <u>1-chô</u> 1 철수     순이	b. <u>1</u> <u>1-chô</u> <u>2</u> 1                    2 철수     순이            책
---	---

Gerdts와 Kim은 Perlmutter & Postal과 Rosen의 절병합규칙들을 이용하여 (24)의구문이 보이는 격표지교체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Gerdts와 Kim의 분석은 격표지교체의 설명에서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론적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절병합분석은 (24a)에서 간접목적격표지의 출현을 설명할 수 없다. 이는, Perlmutter & Postal의 규칙도 Rosen의 규칙도 자동사역형구문에서 내포문주어가 간접목적어관계로 변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Gerdts는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으

14) 3-to-2 Advancement에 대하여는 2.1을 참조할 것.

15)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본 논문에서도 한국어에서는 '1'과 'passive *chômeur*'를 제외한 '1-*chômeur*'는 주격표지물, '2'와 '2-*chômeur*'는 직접목적격표지물, 그리고 '3'과 '3-*chômeur*'는 간접목적격표지물 부여받는 것으로 인정한다.

나, 내포문주어가 절병합에 의해 직접목적어관계를 얻은 후에 간접목적어관계로 강등(3-to-2 Retreat)한다고 가정한다면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타동사역형의 경우에 간접목적어관계로 변화된 내포문의 주어가 직접목적어로 승진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직접목적어로부터 간접목적어로의 강등은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통사현상이므로 임시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Kim (1990:189-92)은 이러한 이유로 간접목적어로의 강등이 아니라 내포문동사가 자동사일 경우에는 내포문주어의 문법관계는 의미에 따라 직접목적어 또는 간접목적어로 변화된다고 제안하고 있다.<sup>16)</sup> 즉, 강제(coercive)의 의미를 갖을 때는 직접목적어관계를 그렇지 않을 때는 간접목적어관계를 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방법도 한국어의 사역형구문의 설명을 위하여 또 다른 형태의 임시방편적인 절병합규칙을 제안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타동사역형구문에서도 같은 교체현상이 있음에도 왜 그러한 규칙이 자동사역형구문에만 국한되는가를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둘째로, Rosen은 물론 Rosen에 근거한 Gerdt와 Kim의 절병합분석에는 이른내적인 문제가 있다.<sup>17)</sup> 먼저, 3장의 (23)과 위의 (26)의 총그림을 다시 보자. 총그림들이 보여 주는 것은 이미 모문에 주어가 있기 때문에 내포문의 주어가 chômeur관계로 변한다는 것이다. Perlmutter (1983b:96)의 Chômeur Law는 어떤 명사( $N_a$ )가 어떤 총( $C_i$ )에서 주어진 문법관계( $GR_x$ )를 갖고 있을 때 다음 총( $C_{i+1}$ )에서 다른 명사( $N_b$ )가 동일한 문법관계( $GR_x$ )를 갖게 되면 원래의 명사( $N_a$ )는 자신의 문법관계를 잃어버리고 chômeur관계로 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총그림에서는 모문의 주어와 내포문의 주어가 동시에 병합총에 출현함으로써 어떤 주어가 최종의 주어로 어떤 주어가 chômeur관계로 변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그럼에도, 내포문주어가 chômeur관계로 변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문법관계의 변화를 규제하는 보편규칙 보다는 추측에 의존하는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sup>18)</sup> 이와 같이, 내포문주어의 주격표지의 설명을 보편규칙이 아니라 추측에 의존하는 Gerdt와 Kim의 분석은 관계문법의 이론 내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 4.2 복합문적 분석

Cho (1987)와 Lee (1991)는 (27)에서와 같이 동사 '하'는 직접목적어를 하위선택하거나 직접목적어와 간접목적어를 함께 하위선택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 16) Causative Clause Union in Korean (Kim 1990:192)

- a. The downstairs intransitive final 1 becomes either a 2 or a 3 in the union stratum.
- b. The downstairs transitive final 1 becomes a 3, and the final 2.
- c. Other nominals inherit in the union stratum their downstairs final GR.

17) 절병합의 문제들중 여기서는 내포문주어의 chômeur관계에 대해서만 논의한다. 절병합이론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Dubinsky (1985)와 Davies & Rosen (1988)을 참조할 것.

18) Gibson & Raposo의 상속원리도 Chômeur Law와 관련하여 같은 문제점을 갖는다.

- (27) a. 하: 동사, ((주어), (직접목적어))  
 내가 숙제를 하였다.  
 b. 하: 동사, ((주어),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내가 순이에게 욕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28)에서와 같이, 동사 ‘하’는 절을 직접목적어로 취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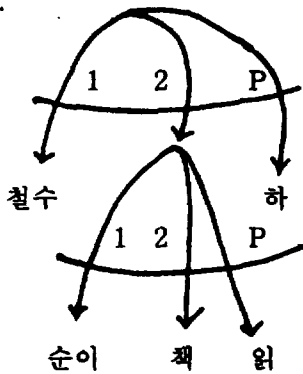
- (28) a. 어머니가 [순이가 학교에 가도록] 하였다.  
 b. 선생님이 [철수가 책을 읽도록] 하였다.

이러한 ‘하’의 특성은 (29)와 같은 문장들이 최종의 층에서도 복문의 구조를 취하며 그들의 최종의 구조와 층그림을 (30)과 (31)과 같이 분석할 수 있게 만든다.<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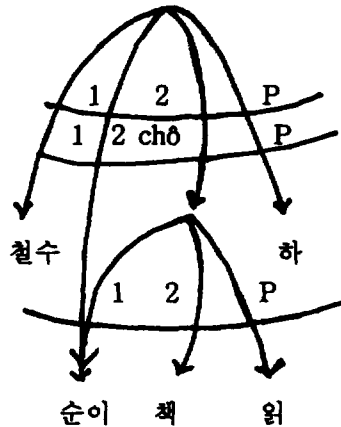
- (29) a. 철수가 순이가 책을 읽게 하였다.  
 b. 철수가 순이를 책을 읽게 하였다.  
 c. 철수가 순이에게 책을 읽게 하였다.

- (30) a. [철수가 [순이가 책을 읽게] 하였다]  
 b. [철수가 순이를<sub>i</sub> [순이가<sub>i</sub> 책을 읽게] 하였다]  
 c. [철수가 순이에게<sub>i</sub> [순이가<sub>i</sub> 책을 읽게] 하였다]

(31)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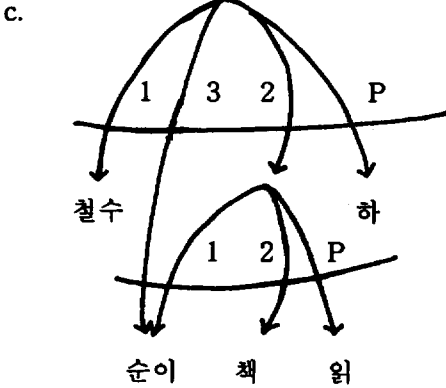


b.



19) Lee (1991)는 아래와 같은 구문들도 같은 이유로 복합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 i) 순이가 영어를 공부를 한다./[순이가<sub>i</sub> [순이가<sub>i</sub> 영어를 공부]를 한다]  
 ii) 순이가 철수를 좋아한다./[순이가 철수를<sub>i</sub> [철수를<sub>i</sub> 좋아] 한다]



먼저, 위의 총그림들이 (29)에 보이는 내포문주어의 격표지교체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기로 하자. 총그림들에 의하면, '순이'는 (31a)에서는 내포문에서 최종의 주어관계를, (31b)에서는 목적어로 인상됨에 따라 문법관계승계법칙에 의해 모문에서 최종의 목적어관계를, (31c)에서는 모문에서의 최종의 간접목적어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내포문의 주어인 '순이'는 (29a)에서는 주격으로, (29b)에서는 직접목적격으로, 그리고 (29c)에서는 간접목적격으로 표시되며, '책'은 내포문의 직접목적어관계를 가지므로 직접목적격으로 표시된다.<sup>20)</sup> 이와 같이, 복합문적 분석은 '하'사역형구문의 격표지교체현상을 아무런 부수적 장치 없이 남김없이 설명할 수 있다.<sup>21)</sup>

뿐만 아니라, 복합문적 분석이 가정하고 있는 사역형문장들의 구조들도 몇 가지 통사적 사실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첫째로, 복합문적 분석에서 '순이'는 통사작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문동사의 하위선택에 의해서 간접목적어관계를 얻게 되는데 이는, (32)에서 처럼, 내포문에 어휘적 주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32) [철수가 순이에게<sub>i</sub> [그녀가<sub>j</sub> 책을 읽게] 하였다]

(30c)에 보인 것처럼, 복합문적 분석에서는 causee 명사인 '순이'가 모문의 간접목적어관계와 내포문의 주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포문의 주어가 강조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주어생략에 의하여 (29c)에서와 같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강조되어야 할 경우에는 대명사화에 의하여 (32)에서 처럼 대명사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29c)와 비교하여 (32)는 강조의 의미를 띄우며 대명사가 causee 명사와 다른 지표를 갖으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는 사실이 이를 확인하여 준다.

20) Cho (1987)는 (29c)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하여 내포문의 주어 pro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pro 대신에 '순이'가 문법관계를 공유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1) 복합문적 분석에서 사역형구문의 구조는 내포문의 자/타동성이 아니라 모문동사 '하'의 어휘적 특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자동사역형구문에도 같은 설명이 적용된다. 그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타동사역형구문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두번째로, 내포문의 주어가 (31b)에서는 모문의 직접목적어관계를, (31c)에서는 모문의 간접목적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가정도 causee 명사와 관련하여 관찰되는 수량사의 유동현상(Quantifier Floating)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Choi (1988), Youn (1990) 등에 의하면, 한국어에서는 주어와 직접목적어로부터의 수량사유동은 가능하나 (33)에서와 같이 간접목적어로부터의 유동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33)의 예들은 재미있는 사실을 보여준다.

- (33) a. 선생님이 세명의 학생들에게 책을 읽게 하시었다.
- b.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세명에게 책을 읽게 하시었다.
- c.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세명이 책을 읽게 하시었다.

causee 명사가 절병합규칙에 의하여 간접목적어관계를 얻은 것이라면, (33b)에서와 같이 간접목적격으로 표지된 causee 명사로부터는 수량사가 유동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33c)는 유동된 수량사가 간접목적격이 아니라 주격으로 표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내포문의 주어가 모문의 간접목적어와 문법관계를 공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수량사의 유동은 간접목적어로부터는 불가능하나 주어로부터는 가능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세번째로, 복합문적 분석에서 가정하는 구조들은, (34)에서와 같이, 내포문동사와 모문동사 사이에 목적격표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 (34) 철수가 순이-가/-를/-에게 책을 읽게-를 하였다.

복합문적 분석의 주장은 내포문 자체가 모문동사에 의해서 직접목적어로 하위선택된다는 것이다. 충그림들에 의하면, (31a)와 (31c)에서 내포문은 모문의 최종목적어이고 (31b)에서는 내포문주어가 모문의 직접목적어로 인식되나 내포문은 문법관계승계법칙에 따라 2-chômeur관계를 얻게 되므로 목적격으로 표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 5. 복합문적 분석의 지지근거

앞장에서 Gerdts와 Kim의 분석들은 두가지 형태의 절병합을 인정함에도 격표지 교체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뿐아니라 임시방편적인 보조장치들을 필요로 함은 물론 이론적인 문제도 내포하고 있음을 논하였다. 그러나, '하'의 하위선택적 특성에 근거한 복합문적 분석은 이론내적인 근거는 물론 격표지교체현상을 추가장치 없이 설명할 수 있으며 제시한 구조들도 정당화될 수 있음을 논하였다. 본 장에서는 절을 적용단위로 하는 여러 통사현상들과 관련하여 절병합분석과 복합문적 분석이 예측하는 바를 비교하여 복합문적 분석이 절병합분석 보다 더 우수한 분석임을 보인다.

## 5.1 주어존대

한국어에서는 최종의 주어가 존경의 대상일 경우에는 동사에 존칭보조어간 '-시-'를 덧붙여 주어에 대한 존경을 표시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수동 규칙은 최초의 주어의 문법관계를 1-chômeur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35)에서와 같이 수동문에서 최초의 주어는 존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35) a.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친다.  
 b.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신다.  
 c. 학생이 선생님에 의해 가르치어진다.  
 d. \*학생이 선생님에 의해 가르치어지신다.

절병합분석에서는 주격으로 표지된 내포문주어의 최종문법관계는 1-chômeur라는 것임에 반하여 복합문적 분석의 주장은 내포문 자체내에서 최종의 주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어존대와 관련하여 절병합분석은 모문의 주어만 존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나 복합문적 분석은 모문의 주어는 물론 내포문의 주어도 존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한다. 아래 (36)의 예문들을 보기로 하자.

- (36) a. \*선생님이 학생이 책을 읽게 하였다.  
 b. 선생님이 학생이 책을 읽게 하시었다.

Gerdtz (1990)와 Kim (1990)에 의하면, (36)의 문장은 절병합에 의하여 '선생님'이 최종의 주어로 변하고 내포문의 동사와 모문의 동사가 하나의 동사로 합쳐진 단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주어존대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37)의 예문들은 주어존대와 관련하여 (36)의 문장이 복합문의 특성을 나타냄을 보여준다.

- (37) a. 학생이 선생님이 책을 읽으시게 하시었다.  
 b. \*학생이 선생님이 책을 읽게 하시었다.  
 c. \*선생님이 학생이 책을 읽으시게 하였다.  
 d. 아버지-가/-께서 어머니-가/-께서 책을 읽으시게 하시었다.

(37a,b,c)의 예들은 내포문동사에 나타나는 '-시-'는 내포문의 주어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주며, (37d)는 모문과 내포문의 주어가 각각 모문과 내포문의 존대를 결정함을 보여준다. 이는 (37)과 같은 문장의 구조는 단문이 아니라 복문이며 주어존대는 동일한 절 내에서의 주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Choi (1988)는 최종의 주어만 '-께서'라는 존칭표지로 표지될 수 있음을 관찰하고 있다. (37d)에서 처럼, 모문의 주어는 물론 내포문의 주어도 '-께서'로 표지될 수 있다는 것은 내포문의 주어가 1-chômeur가 아니라 최종의 주어로 위의 문장의



구조는 복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증명하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절병합분석에서는 내포문의 주어가 절병합의 결과 간접목적어관계를 갖게 되고, 이어서 직접목적어로 승진할 경우 직접목적어관계를 갖게 되므로 causee명사가 직접목적격이나 간접목적격으로 표지된 경우에는 주어존대가 일어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복합문적 분석의 예측은 그와 반대이며 (38)은 복합문적 분석의 예측이 맞는 것임을 보여준다.

- (38) a. 선생님이 순이-를/-에게 책을 읽(\*으시)게 하시었다.  
 b. 학생이 선생님-을/-에게 책을 읽\*(으시)게 하였다.

복합문적 분석에서는 causee 명사가 직접목적격이나 간접목적격으로 표지되는 경우에도 내포문의 주어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내포문내의 주어존대를 결정하게 된다. 그 결과, (38)에서 '순이'는 존대의 대상이 아니므로 내포문동사에 '-시-'가 나타날 수 없으며 (38)에서 '선생님'은 존대의 대상이므로 내포문동사에 '-시-'가 나타나야만 할 것을 복합문적 분석은 정확히 예측을 하나 절병합분석은 (38)과 반대로 예측을 한다.

## 5.2 목적어존대

한국어에서는 직접목적어나 간접목적어관계에 있는 명사가 존경의 대상일 경우에, (39)에서 처럼, 동사에 보조어간 '-어 드리'가 나타나 존대를 표시한다.

- (39) a. 순이가 선생님을 돌보아 드리었다.  
 b. 순이가 선생님에게 책을 사드리었다

이러한 목적어존대와 관련하여, 절병합분석과 복합문적 분석은, (40)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직접목적격이나 간접목적격으로 표지되는 causee 명사가 목적어존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함께 예측하나 그에 대한 설명은 다르다.

- (40) 철수가 선생님-을/-에게 책을 읽게 하여 드리었다.

절병합분석에서는 '읽게 하'가 하나의 동사이며 '선생님'이 간접목적어나 직접목적어관계에 있으므로 '-어 드리'는 동사 '읽게 하'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반면에, 복합문적 분석에서는 '선생님'이 모문의 직접목적어나 간접목적어의 관계를 가지므로 모문동사 '하'에 '-어 드리'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의견상으로는 같은 결과를 예측하는 듯하나, 두 분석은 목적어존대와 앞에서 논의한 주어존대와 관련하여 정반대의 예측을 한다. 다시 말하자면, 절병합분석은 (40)에서 '선생님'은 동사 '읽'에 주어존대표시가 불가능함을 예측하는 반면, 복합문적 분석은 동사 '읽'은 내포문의 동사이고 '선생님'은 내포문의 주어관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읽'에 주어존칭어간 '-시-'가 함께 나타

날 수 있음을 예측하며, (41)은 그러한 예측이 옳음을 보여준다.

(41) 철수가 선생님-을/-에게 책을 읽으시게 하여 드리었다.

### 5.3 시간부사어삽입

Fodor (1970)에 의하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들은 하나의 절에, 정확히 본동사 하나에, 하나씩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42)와 (4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단문에서는 하나의 시간부사만 복문에서는 두 개의 시간부사가 허용된다.

- (42) a. 철수가 어제 순이를 만났다.  
b. \*철수가 어제 순이를 내일 만났다.

(43) 철수가 순이가 어제 책을 읽었다고 오늘 믿었다.

이와 같은 시간부사의 허용조건과 관련하여, '하'사역형구문을 단문으로 분석하는 절병합분석은 '하'사역형구문에는 하나의 시간부사만 허용될 것으로 예측하는 반면에 복합문적 분석은 모문과 내포문에 각각 허용될 수 있음을 예측한다. 먼저, (44)의 예를 보기로 하자.

(44) %선생님이 학생-이/-을/-에게 책을 읽게 오늘 하였다.

Gerdts (1990:208)는 자신이 조사한 한국인 화자들중 반정도 (almost half of Korean speakers)에게는 (44)와 같은 예문에서 내포문동사와 모문동사 사이에 시간부사의 출현이 불가능하였으며, 이는 절병합에 의해 두개의 동사가 하나의 동사로 되어 결과적으로 (44)와 같은 문장은 단문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Gerdts 자신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반 이상의 화자들은 (44)의 문장을 문법적인 문장으로 생각한다. (44)와 같은 문장의 문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동사 '하'가 보이는 특성 때문인 듯하다. Lee (1991)에 의하면, '하'는 자체의 어휘적 의미가 강하지 못한 동사이기 때문에 인식단계에서 '하'가 내포문의 동사와 합쳐져(cohesion) 쉽게 하나의 동사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44)의 문법성 문제는 통사적 문제라기 보다는 인식단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으로 (44)의 문장은 문법적인 문장으로 인정되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44)와 같은 문장에는 (4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시간부사가 함께 나올 수 있다.

(45) 선생님이 학생-이/-을/-에게 내일 책을 읽게 어제 하였다.

위의 예에서 처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간부사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내포문의 동사와 모문의 동사가 하나의 동사가 아니라 두 개의 동사로 존재하며 사역형구문은 복문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간부사의 작용 영향권은 자신이 속하고 있는 절내에 국한되기 때문인 것이다.

#### 5.4 부정어삽입

한국어에서 '안' 또는 '못'과 같은 부정어는, (46)에서와 같이, 동일한 절내의 본동사 바로 앞에만 위치할 수 있다.

- (46) a. 철수가 밥을 안/못 먹었다.  
 b. \*철수가 안/못 밥을 먹었다.  
 c. \*안/못 철수가 밥을 먹었다.

부정어가 동사 앞에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부정어가 문장을 부정하는 부정어가 아닌 단동사만을 부정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부정어의 위치와 관련하여, 절병합분석은 사역형문장에서 내포문동사와 모문동사는 하나의 동사이므로 부정어는 내포문동사의 앞에만 위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반면에, 복합문적 분석은 내포문의 동사 앞과 모문의 동사 앞에 각각 위치할 수 있음을 예측한다. 아래 (47)의 예들을 보기로 하자.

- (47) a. 철수가 순이-가/-를/-에게 책을 안/못 읽게 하였다.  
 b. 철수가 순이-가/-를/-에게 책을 읽게 안/못 하였다.  
 c. 철수가 순이-가/-를/-에게 책을 안/못 읽게 안/못 하였다.

(47)의 예들은 내포문동사의 앞과 모문동사의 앞에 부정어가 하나씩 위치함은 물론 내포문동사와 모문동사의 앞에 각각 위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정어삽입이 표층에서의 현상이라면, 내포문동사와 모문동사가 하나의 동사가 된다고 가정하는 절병합분석은 (47a)만 가능하고 (47b)와 (47c)는 불가능한 문장으로 잘못된 예측을 할 수 밖에 없으나 복합문적 분석은 모두 가능한 문장들로 올바른 예측을 할 수 있다.

5.3에서 시간부사가 내포문의 동사와 모문동사의 사이에 나타날 수 있음은 '하' 사역형구문이 절병합에 의해 두 개의 동사가 하나의 동사로 합쳐진 단문이 아니라 복합문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논하였다. 아울러, (47)에서와 같이 동사부정어가 '하' 사역형구문에서 내포문의 동사와 모문동사의 사이에 나타날 수 있음은 '하' 사역형구문이 복합문임을 보이는 또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다.

## 5.5 Scrambling

한국어에는 문장의 요소를 문체상의 이유로 문장의 앞자리로 이동시키는 scrambling이라는 현상이 있다. 아래 (48)과 (49)에서와 같이 최종의 목적어나 2-chômeur관계에 있는 명사들은 대체로 scrambling의 대상이 될 수 있다.<sup>22)23)</sup>

- (48) a. 순이가 책을 읽었다.  
b. 책을 순이가 읽었다.

- (49) a. 순이가 철수를 책을 주었다.  
b. 철수를 순이가 책을 주었다.  
c. 책을 순이가 철수를 주었다.

뿐만 아니라, (50)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내포문에서 최종의 목적어와 최종의 목적어관계를 갖는 내포문 자체도 scrambling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50) a. [순이가 [철수가 책을 읽]도록 설득하였다]  
b. 책을 순이가 철수가 읽도록 설득하였다.  
c. 철수가 책을 읽도록 순이가 설득하였다.

목적어의 scrambling과 관련하여 절병합분석과 복합문적 분석이 예측하는 바를 논의하기 위하여 '하'사역형구문을 다시 보기로 하자.

- (51) a. 철수가 순이가 책을 읽게 하였다.  
b. 철수가 순이를 책을 읽게 하였다.  
c. 철수가 순이에게 책을 읽게 하였다.

절병합분석에 의하면, (51a)에서 '책'은 상속원리에 의하여 최종의 목적어관계를 얻으며, (51b)에서 절병합후 직접목적어로의 승진에 의하여 '순이'는 최종의 집적목적어관계를 '책'은 2-chômeur관계를 얻으며, (51c)에서 '책'은 상속원리에 의하여 직접목적

22) 문장의 앞은 초점(focus)의 자리이므로 문체상 강조가 필요한 요소를 scramble 시킬 수 있다. 주어와 서술어를 제외한 명사적 요소들의 scrambling이 가능하나, 논의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목적어의 scrambling만을 논하기로 한다. 아울러, 주제화도 주제화의 대상이 될 요소를 문장의 앞으로 이동시킬 것을 전제하므로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23) 아래에서와 같이 소유자인상에 의한 2-chômeur는 scramble되지 않는다.

- i) 철수가 순이의 팔을 잡았다.  
ii) 철수가 순이를 팔을 잡았다.  
iii) 순이를 철수가 팔을 잡았다.  
iv) \*팔을 철수가 순이를 잡았다.

적어관계를 얻는다. 그렇다면, 절병합분석에서는 최종의 직접목적어관계나 2-chômeur 관계를 갖는 '순이'와 '책'만 scramble의 대상이므로 (52)와 같은 예들을 가능한 scrambling의 예들로 예측한다.

- (52) a. 책을 철수가 순이가 읽게 하였다.
- b. 순이를 철수가 책을 읽게 하였다.
- c. 책을 철수가 순이에게 읽게 하였다.
- d. 순이를 책을 철수가 읽게 하였다.

그러나, 복합문적 분석에 의하면, (51a)와 (51c)에서 '책'은 내포문에서 최종의 목적어관계를 갖으며, (51b)에서 목적어로의 상승의 결과 '순이'는 최종의 목적어관계를 '책'은 내포문에서의 최종의 목적어관계를 갖는다. 아울러, 내포문 자체도 모문에서의 목적어관계를 갖는다. 그렇다면, 복합문적 분석에서는 최종의 직접목적어 관계를 갖고 있는 '순이'와 '책'이 scramble되어 (51)과 같은 문장들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sup>24)</sup> 내포문 자체도 (53)에서와 같이 scramble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한다.

- (53) a. 순이가 책을 읽게 철수가 하였다.
- b. 순이가 책을 읽게를 철수가 하였다.

(53a)는 내포문 자체가 scramble된 경우이며, (53b)에서 scramble된 내포문 뒤에 목적격표지가 나타날 수 있음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내포문자체가 모문의 최종의 직접목적어로서 scramble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Gerdts (1990)의 주장과 같이 내포문동사와 모문동사가 절병합으로 하나의 동사가 되고, Gerdts (1986)의 논의 처럼 결과적으로 하나의 단어라면,<sup>25)</sup> 내포문의 동사와 모문의 동사가 서로 떨어져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복합문적 분석은 (53)의 예들을 올바르게 예측할 뿐만 아니라, (53b)에서 처럼, 내포문 자체의 scrambling으로 내포문동사와 모문동사가 떨어진 상태로 위치할 수 밖에 없는 원리적인 이유까지도 제공한다.

24) (53d)의 예는 절병합분석에서는 최종의 직접목적어인 '순이'와 2-chômeur인 '책'이 scramble된 것으로 복합문적 분석에서는 모문에서 최종의 직접목적어인 '순이'와 내포문에서 최종의 직접목적어인 '책'이 scramble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25) Gerdts (1986)는 아래에 제시된 Perlmutter (1985)의 word-mate condition을 따라 내포문 동사와 모문동사는 하나의 단어를 형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Word-mate Condition

If two elements are word-mates in morphological structure, then the elements that determine them are clausemates in the syntactic structure.

## 5. 6 수동화규칙

수동화는 타동사구문에서 직접목적어관계를 갖는 명사를 주어관계로 변화시키고 주어관계에 있는 명사를 *chômeur*관계로 변하게 하는 범언어적 현상이다. 뿐만 아니라, 수동화는 절경계에 민감한 규칙으로 내포문의 직접목적어는 모문의 단계에서 수동화될 수 없다.

절병합분석은 '하'사역형구문을 단문으로 가정하고 있으므로 Stratal Uniqueness Law의 규제로 최종의 직접목적어관계를 갖는 명사는 하나임을 주장한다. 반면에, 복합문적 분석은 '하'사역형구문을 복합문으로 가정하고 있으므로 내포문에서 직접목적어관계를 갖는 명사와 모문에서 직접목적어관계를 갖는 명사가 따로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에 따라 두분석은 수동화규칙과 관련하여 다른 예측을 하게 된다. 이제, '하'사역형구문을 다시 보기로 하자.

- (54) a. 철수가 순이가 책을 읽게 하였다.  
 b. 철수가 순이를 책을 읽게 하였다.  
 c. 철수가 순이에게 책을 읽게 하였다

절병합분석에 의하면, (54a)와 (54c)에서는 '책'이, (54b)에서는 '순이'가 최종의 목적어관계를 갖는 명사들이나, (54b)에서 '책'은 2-*chômeur*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절병합분석은, (54a)와 (54c)에서는 '책'이, (54b)에서는 '순이'가 수동화되어 수동문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반면, (54)에서의 '책'은 수동화될 수 없어 수동문을 형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한다.<sup>26)</sup>

이제, (54)의 문장들에 수동화규칙이 적용된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sup>27)</sup>

- (55) a. \*책이 철수에 의하여 순이가 읽게 되었다.  
 b. 순이가 철수에 의해 책을 읽게 되었다.  
 b'. \*책이 철수에 의해 순이를 읽게 되었다.  
 c. \*책이 철수에 의해 순이에게 책을 읽게 되었다.

(55a)는 (54a)에서 직접목적어인 '책'이 수동화된 경우로, "책에 대해서 말하자면, 철

26. *Chômeur Advancement Ban* (cf. Perlmutter & Postal (1983:117))은 *chômeur*관계로 변한 명사는 문법관계를 다시 갖을 수 없도록 규제한다.

27) Gerdts (1990)와 Kim (1990)은 '하'의 수동형을 '하여지다'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고유동사의 수동형은 '-어지'의 첨가로 나타나며 한자어나 '하'가 함께 하는 동사는 '하'가 '되'로 대체되어 수동문을 형성한다. 뿐만 아니라, '하여지다'는 '변하여지다, 행하여지다'와 같이 극히 제한된 경우 이외에는 비문법적으로 인식된다. 더욱이, '-어지'를 '하'의 수동형어미로 분석하는 것은 문법성의 판단을 애매하게 만들므로, '되'를 '하'의 수동형으로 가정하고 두분석의 예측에 대해서만 논의를 한다.

수에 의해서 순이가 책을 읽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책’이 아니라 ‘순이’가 수동문의 주어로 해석된다. 그러나, ‘책’이 직접목적어이므로 의도하는 수동문에서는 ‘순이’가 아니라 ‘책’이 주어로 해석되어야 하며 그러한 이유로 (55a)는 비문이다. (55b)는 (54b)에서 직접목적어인 ‘순이’가 수동화된 경우로, 예측하는 바와 같이 문법적인 문장이다. (55b’)은 (54b)에서 2-chômeur인 ‘책’이 수동화된 경우로, 예측된대로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55c)는 (54c)에서 직접목적어인 ‘책’이 수동화된 경우로 문법적인 문장으로 예측되나 실제로는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이처럼, 절병합분석은 (55b)와 (55b’)만 올바르게 예측할 뿐 (55a)와 (55c)는 그릇되게 예측을 한다.

반면에, 복합문적 분석이 예측하는 바는 사뭇 다르다. 복합문적 분석에 의하면, (54a)와 (54c)에서는 ‘책’이 내포문에서 최종의 목적어관계를, (54b)에서는 ‘순이’와 ‘책’은 각각 모문과 내포문에서의 최종의 목적어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내포문 자체는 (54a)와 (54c)에서는 모문에서의 목적어관계를 갖고 있으나 (54b)에서는 2-chômeur관계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복합문적 분석은, 수동화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만족되는 한, 내포문의 목적어는 내포문내에서 모문의 목적어는 모문의 단계에서 수동화될 뿐아니라 내포문과 모문의 단계에서 수동화규칙이 연속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예측한다. 뿐만 아니라, 내포문도 모문에서의 직접목적어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모문단계에서 수동화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면, 복합문적 분석이 ‘하’사역형구문에서의 수동화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예측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기로 하자. 수동화규칙은 순환규칙이며 수의규칙이므로, 내포문내 수동화현상부터 보기로 하자. (54)에서 ‘책’은 내포문내의 목적어이므로 (56)에서와 같이 내포문내에서 수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 (56) a. 철수가 책이 순이에 의해 읽히게 하였다.
- b. \*철수가 순이를 책이 읽히게 하였다.
- b'. \*철수가 순이를; [책이 (순이에; 의해) 읽히 게] 하였다.
- c. \*철수가 순이에게 책이 읽히게 하였다.
- c'. \*철수가 순이에게; [책이 (순이에; 의해) 읽히 게] 하였다.

(56a)는 (54a)에서 ‘책’이 내포문내에서 수동화된 경우로 예측된 바와 같이 문법적인 문장이다. (56b)는 (54b)에서 ‘책’이 내포문내에서 수동화된 경우로 문법적인 문장으로 예측되나 실제로는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그러나, (56b)가 비문으로 나타나는 것은 복합문적 분석의 예측력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56b’)이 설명하여 주고 있다. (56b’)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책’이 내포문내에서 수동화되면 내포문의 주어이었던 ‘순이’가 chômeur로 변하게 된다. 4.2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복합문적 분석에서는 causee 명사가 목적적으로 표지된 경우는 내포문의 주어가 모문의 직접목적어로 인상되는 인상구문의 구조를 갖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내포문의 수동화로 인하여 내포문의 주어이었던 ‘순이’가 모문으로의 상승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56b)와 (56b’)이 보여주는 사실은 복합문적 분석은 내포문내의 수동화

에 대한 올바른 예측은 물론 문법관계의 변화를 규제하는 다른 보편규칙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까지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56c)는 (54c)에서 '책'이 내포문내에서 수동화된 경우로 문법적인 문장으로 예측되나 실제로는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56c)가 비문으로 나타나는 것 또한 복합문적 분석의 예측력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56c)가 설명하여 주고 있다. 4.2에서 간접목적격으로 표지된 causee 명사는 내포문의 주어와 문법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내포문의 주어가 강조되어야 할 경우에만 대명사로 나타날 수 있음을 논한바 있다. 그렇다면, (56c')이 보여주는 것 처럼, 내포문내의 수동화로 인하여 내포문의 주어는 chômeur로 변하게 되고 chômeur관계에 있는 명사는 결코 강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causee 명사가 문법관계를 공유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56c)는 비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56c)와 (56c')은 복합문적 분석에서의 내포문내의 수동화에 대한 예측이 올바르며 제시하고 있는 구조가 타당함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문에서의 수동화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54b)에서는 '순이'가 모문의 목적어관계를 갖는 반면 내포문은 2-chômeur관계를 갖으며, (54a)와 (54c)에서는 내포문 자체가 모문에서의 목적어관계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54b)에서는 '순이'가, (54a)와 (54c)에서는 내포문이 수동화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래의 (57)을 보기로 하자.

- (57) a. 철수에 의해 순이가 책을 읽게 되었다.  
 b. 순이가 철수에 의해 책을 읽게 되었다.  
 b'. \*철수에 의해 순이를 책을 읽게 되었다.  
 c. \*철수에 의해 순이에게 책을 읽게 되었다.  
 c'. \*철수에 의해 순이에게; [(순이가) 책을 읽게] 되었다.

(57a)는 (54a)에서 내포문이 수동화된 경우로 예측된 바와 같이 문법적인 문장임을 보여준다. (57b)는 (54b)에서 모문으로 상승하여 목적어관계를 갖는 '순이'가 수동화된 경우로 예측된대로 문법적인 문장으로 나타난다. (57b')는 (54b)에서 내포문이 수동화된 경우로, 내포문은 2-chômeur관계에 있으므로 Chômeur Advancement Ban에 의하여 수동화될 수 없으므로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예측되며 실제로도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나타난다.<sup>28)</sup> (57c)는 (54c)에서 내포문이 수동화된 경우로 문법적인 문장이 될 것으로 예측되나 실제로는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이는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간접목적격으로 표지된 causee 명사는 내포문의 주어와 문법관계를 공유하여야 하나, 내포문이 수동화에 의하여 (57c')이 보여주는 것 처럼 모문의 주어관계를 갖게 되어 문법공유의 환경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28) (57b)가 비문법적인 이유는, (57b'')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내포문이 수동화에 의하여 모문의 주어관계로 변하기 때문에 내포문의 주어가 모문의 목적어로 인상될 수 있는 환경이 파괴되었기 때문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57) b'. \*철수에 의해 순이를; [(순이가) 책을 읽게] 되었다.



이제, 내포문과 모문에서 수동화가 연속하여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논의한 바와 같이, 수동화는 주어와 직접목적어관계를 갖고 있는 명사들이 존재하는 타동문을 전제한다. 그러나, (54b)에서는 ‘순이’가 모문으로 인상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포문내의 수동화가 불가능하며, (54c)에서는 문법관계의 공유환경이 파괴되므로 내포문내의 수동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54a)에서만 수동화규칙이 내포문과 모문에서 순환적으로 적용될 것이 예측되며, (58)의 예는 그러한 예측이 맞는 것임을 보여준다.

(58) 철수에 의하여 책이 순이에 의하여 읽히게 되었다.

위에서 절병합분석은 ‘하’사역형구문에 있어서의 수동화현상과 관련하여 가능한 수동형의 문장들도 예측하지 못하며 예측이 가능한 문장의 예들에 있어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잘못된 예측을 하는 것을 보았다. 다시 말해서, 절병합분석은 ‘하’사역형구문이 보이는 수동화현상의 설명에 있어서 설명해야 할 예문들조차 예측을 못하거나 반대의 예측을 허용하는 경험적 타당성마저 만족시키지 못하는 분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복합문적 분석은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올바른 예측을 할 뿐더러 예측과는 달리 불가능한 경우의 문장들에 대하여서는 구조적인 설명까지 곁하여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분석임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59)로 되풀이 된 내포문주어가 주격으로 표기되는 사역형문장과 그 문장의 내포문에서의 목적어가 수동화된 예와 관련하여 한가지 더 살펴보기로 하자.

- (59) a. 철수가 순이가 책을 읽게 하였다.
- b. 철수가 책이 순이에 의하여 읽히게 하였다.

위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59b)에서 ‘책이 순이에 의하여 읽히게’는 ‘순이가 책을 읽게’의 수동문이다. (59a)에 대하여, Gerdtz (1990)와 Kim (1990)은 Rosen (1983)의 주장을 따라 ‘순이’는 최초의 층에서 내포문의 주어였으나 최종의 층에서는 1-chômeur의 관계를 갖는 문법관계의 변화가 없는 절병합구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Gerdtz와 Kim에서 처럼, ‘-게 하’가 사역형어미라고 주장되는 한, (59b)는 사역형구문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Rosen (1983)의 설명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3의 (22)에서 논의한 것 처럼, Rosen (1983)은, 이탈리아에서는 사역형구문에 수동형태소가 나타날 수 없음을 관찰하는 한편 Romance언어들에서 재귀대명사와 비대격동사(unaccusative predicate)의 논항명사가<sup>29)</sup> 사역형구문에 나타날 수 없음을 관찰하면서, (60)과 같이 최초의 층에서 주어가 아닌 논항은 사역형구문의 내포문에서 주어관계(1-arc)를 경험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sup>30)</sup>

29) 비대격동사는 최초의 층에서 목적어관계를 갖는 논항만을 취하는 동사로 이때의 논항은 최종주어 존재법칙(Final I Law)에 의해 주어로 승진한다.

30) 1-arc를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명사가 어떤 층에서이건 주어관계를 갖음을 말한다.

(60) Downstairs Freeze in Causative Unions (Rosen 1983:347)

If a nominal head a 1-arc in the complement clause of a union,  
it heads an initial 1-arc in that clause.

Gerdts와 Kim에서는 명백히 언급이되지 않는 않지만, Rosen의 (60)과 같은 제안이 뜻하는 것은 (59a)에서 '순이가 책을 읽게'는 수동형문장이 아니므로 '순이'는 최초의 주어관계를 갖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59a)는 사역형구문이며 절병합과정에서 '순이'는 Stratal Uniqueness Law에 의하여 1-chômeur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59b)에서 '책이 순이에 의해 읽게'가 수동문이라면, 주격으로 표지된 '책'은 분명히 최초의 주어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60)과 같은 Rosen의 관찰이 타당한 것이라면, Rosen의 제안에 근거한 Gerdts와 Kim에서는 (59b)와 같은 문장은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분석되거나 사역형이 아닌 다른 구문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59a)가 문법적인 문장인한, Gerdts와 Kim은 (59a)와 (59b)의 '-게 하'를 서로 다른 문법형식으로 분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59b)는 (59a)와 마찬가지로 사역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수동의 의미도 갖고 있다. 그렇다면, (60)에 기초한 Rosen을 따라 (59a)를 문법관계의 변화가 없는 절병합구문으로 분석하고 있는 Gerdts와 Kim의 분석은 이론적인 모순을 보이는 분석이라 할 수 있다.

##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하'사역형구문을 절병합으로 분석하고 있는 Gerdts (1990)와 Kim (1990)의 분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논의하는 한편 '하'사역형구문을 '하'의 하위선택적 특질에 근거하여 복합문의 구조를 갖는 구문으로 분석하는 복합문적 분석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주어존대, 목적어존대, 시간부사어삼입, 부정어삼입, scrambling, 수동화현상등과 같은 통사규칙들이 '하'사역형구문과 관련하여 보이는 현상들의 설명에 있어서 절병합분석은 관찰적 타당성 조차도 만족 시키지 못하는 분석인 반면에 복합문적 관찰적 타당성은 물론 원인적 규명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분석임을 보였다. 특히, 주어존대, 목적어존대, 시간부사어삼입, 수동화현상과 같이 절을 적용단위로 하거나 적용에 있어서 절경계에 민감한 통사규칙들에 관하여 복합문적 분석이 올바른 예측을 할 수 있음은 '하'사역형구문은 절병합에 의한 단문이 아니라 복합문이라는 증거임을 논의하였다.

되풀이 하자면, 본 논문의 주장은 Perlmutter & Postal (1974), Gibson & Rosen (1986), Rosen (1986) 등에 의하여 제안되고 수정되어 온 절병합분석에 근거하여 '하'사역형구문을 단문으로 분석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분석은 Gerdts와 Kim의 분석과 똑같은 문제점들을 노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두가지의 후속질문을 가능하게 한다. 첫번째는, 한국어에는 언어보편적이라 주장되어 온 절병합현

상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다. 아마도, 2.3에서 (14)로 제시된 바 있는 단형사역형의 문장들을 절병합현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듯하다. 그렇다면, 절병합현상으로 단형사역형구문을 분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또 하나의 논문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 믿는다. 두번째는, '하'사역형구문이 정말로 사역형구문인가라는 질문이다. '하'사역형구문이 사역구문을 규제하는 절병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의 하위선택적 특질에 의해 생성되는 구조 자체이며 내포문주어의 목적격 표지는 '하'의 동사적 특성에 의해 야기되는 인상현상에 의한 것이라면, 어떻게해서 사역의 의미를 띄우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하'사역형구문이 앞에서 언급한 단형사역형구문과는 사역의 의미의 정도가 다른 것은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하'사역형구문에 있어서의 사역의 의미는 동사의 사역형에 의해 부여되기 보다는 내포문동사의 의미와 모문동사의 의미의 합에 의해 부여되는 듯하다. 그러나, 두유형의 구문이 띄우는 의미의 차이에 대한 논의는 의미론에 관한 논의이므로 이역시 또 하나의 논문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 참 고 문 헌

- Aissen, J. L. and Perlmutter, D. M. 1983. Clause Reduction in Spanish. David M. Perlmutter (ed.) 1983, 360-403.
- Bell, S. 1976. Cebuano Subjects in Two Frameworks. Doctoral Dissertation. MIT. [Distributed by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Bloomington.]
- Blake, J. B. 1990. Relational Gramma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ho, E. 1987. Korean Causatives in Relational Grammar: Arguments against the Clause Union Analysis. Kuno, Lee, Whitman, Bak and Kang (eds.) 1987, 3-26.
- Choi, Y-S. 1988. A Study of Ascension Constructions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 Comrie, B. 1976. The Syntax of Causative Constructions: Cross-Language Similarities and Divergences. *Syntax and Semantics* 6:262-312. Academy Press.
- Davies, W. and Rosen C. 1988. Unions as Multi-predicate Clauses. *Language* 64:52-88.
- Dubinsky, S. 1985. Union Constructions in Japanese: A Unified Analysis of '-sase' and '-rare', Doctoral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 Fodor, J. A. 1970. Three Reasons for Not Deriving 'Kill' from 'CAUSE TO DIE'. *Linguistic Inquiry* 1:429-38.
- Gerds, D. B. 1986. Causatives and Passives in Korean: Evidence for Clause Union Without Revaluation. Soon Ae Chun (ed.) *Relational Studies on Korean*. Department of Linguistic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New York. 98-185.

- Gerds, D. B. Revaluation and Inheritance in Korean Causative Union. Postal, P. M and B. D. Joseph (eds.) 1990, 203-46.
- Gibson, J. 1980. Clause Union in Chamorro and in Universal Grammar.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Diego.
- Gibson, J. and E. Raposo 1986. Clause Union, the Stratal Uniqueness Law and the Chômeur Relatio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4:295-331.
- Harris, A. 1981. *Georgian Syntax: A Study in Relational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ng, Y.-S. Two Types of Periphrastic Causative Constructions in Korean. *Linguistic Journal of Korea* 9:29-71.
- Kim, I.-K. 1990. *Korean Clause Structure: A Relational Approach*. Doctoral Dissert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uno, S. et al. 1987.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Seoul: Hanshin.
- Lee, K. S. 1991. *Multiple Accusative Constructions in Korean and the Stratal Uniqueness Law*.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 Park, B.-S. 1972. *A Study of the Korean Noun Phrase Complementation Structures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Verb Ha*.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Published under the title *Complement Structures in Korean*, Seoul: Tower Press. 1974.]
- Park, K. 1986. *The Lexical Representations of Korean Causatives and Passives* M.A. Thesi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Distributed by the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Bloomington.]
- Patterson, Betty S. J. 1974. *A Study of Korean Causatives*. M.A. Thesis. University of Hawaii.
- Perlmutter, D. M. (ed.) 1983. *Studies in Relational Grammar 1*.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erlmutter, D. M. 1985. *The Morphological Locality Principle*. Paper presented at Stanford University.
- Perlmutter, D. M. and Postal, P. M. 1974. *Lectures on Relational Grammar*. Summer Linguistic Institute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
- Perlmutter, D. M. and Postal, P. M. 1983a. *The Relational Succession Law*. D. Perlmutter (ed.) 1983, 30-80.
- Perlmutter, D. M. and Postal, P. M. 1983b. *Some Proposed Laws of Basic Clause Structure*. D. Perlmutter (ed.) 1983, 81-128.
- Perlmutter, D. M. and Postal, P. M. 1984. *Impersonal Passives and Some Relational Laws*. D. Perlmutter and C. Rosen (eds) 1984, 126-70.

- Perlmutter, D. M. and Rosen, C. 1984. *Studies in Relational Grammar 2*. Chicago: The Chicago University.
- Postal, P. M. and B. D. Joseph. 1990. *Studies in Relational Grammar 3*.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sen, C. 1981. *The Relational Structure of Reflexive Clauses: Evidence from Italian*.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Rosen, C. 1983. Universals of Causative Union: A Co-Proposal to the Gibson-Raposo Typology. *CLS* 19:338-52.
- Yang, I.-S. 1972. *Korean Syntax: Case Markers, Delimiters, Complement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 Youn, C. 1990. *A Relational Analysis of Korean Multiple Nominative Constructions*. Doctoral Dissertation. SUNY at Buffalo.